

2008년 9월 8일 월 말씀

마음 갖고 날고 마음 갖고 모두 갈 곳을 갑니다. 영은 안 보이니까 마음을 중심하는 것입니다. 물론 영을 보는 사람은 영을 다 봅니다. 그렇게 알고 열심히 하는 것입니다. 아픈 사람보다 오히려 쳐다보는 사람이 더 고통스러운 경우가 많습니다. 열심히 뛰고 달리고 해야 합니다.

조은소리를 많이 읽습니다. 몇 번씩 계속 읽어보고 있습니다. 책자에 나온 사람은 내가 볼 수 있어서 잘 하는데 안 나오는 사람은 잘 모릅니다. 나는 지금 하는 일이 너무 많아서 정신 못차리고 밥 먹을 시간도 없습니다. 잠자는 시간도 없습니다. 어찌 된 것인지 더 바빠졌습니다.

사업할때는 잘 생각해보고 해야 됩니다. 작은 사업이든 큰 사업이든 사업은 달아보고 끈으로 재어보고 센티미터까지 다 재어보고 해야 합니다. 이제 사업을 통한 몸부림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얻어지는 것입니다. 크게 하면 크게 얻어지고 작게 하면 작게 얻어집니다. 그렇게 알고 열심히 하십시오.

사업은 벌리면 찢어집니다. 그러니 너무 벌리면 안됩니다. 무용할 줄 모르면서 몸도 안 풀고 다른 사람이 다리 잘 찢는다고 나도 하면 찢다가 잘못되면 후유증이 오래 갑니다. 나도 축구하러 갔다가 남 축구하듯이 한번 발 운동했더니 뚝하고 소리가 났고 그 후 6개월동안 다리를 쓰지 못했습니다. 그 후부터 이제까지는 전혀 그런 일이 없었습니다. 한 번 실수를 해서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도 그렇게 알고 잘 들 하시기 바랍니다.

장로들도 학교 다닐 때 만났는데 나이가 40대씩 되어 갔으니 잘 들 해나가야 합니다. 저울에 달아보고 그리고 끈으로 미리(mm)까지 재어보고 하면 그냥 100% 정확합니다. 그렇게 알고 해나가면 됩니다. 나는 어디에 있으나 바쁩니다. 어디에 있으나 똑같습니다. 어디에 있다고 생각을 안 합니다. 내가 몸 안에 있는지 몸 밖에 있는지 천국에 와 있는지 어디에 있는지 잘 모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기도를 하면서 지금 지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깥의 사람보다 더 바쁘고 내가 밖에 있었을 때보다 더 바쁩니다. 그동안 내가 책 써 놓은 것을 내가 못 봤습니다. 한 80권 썼는데 여기 출판된 것은 몇 십권 입니다. 이것을 다 못 읽어봤습니다. 책 쓴 사람이 전체를 못 읽어보고 출판을 했었습니다. 바쁘니까 못 읽어봤었는데 여기서 읽어보면서 다시 또 교정하고 교정해서 다시 출판할 것입니다. 교정하는 것 뿐 만아니라 앞으로 쓸 것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지금도 글을 쓰고 있습니다. 이것저것 너무 할 일이 많습니다. 여기 있으니 저기 있으니 50개국을 다 다스려야 되니까 바쁩니다.

신앙이 튼튼한 사람이 약한 자를 붙잡아 쥐야 합니다. 그 길 밖에는 없습니다. 몸도 아프지 않도록 잘 관리해야 합니다. 평생 써먹을 몸이니 초근초근 건강관리 잘 하도록 하십시오. 주일, 수요일때 목사님들 설교를 잘 들으십시오. 그 속에 답이 다 들어있습니다.

내가 회원들 이름 넣어가면서 기도해주었습니다. 하루에 2천번씩 기도해주었습니다. 그러니까 각 교회 다 넣고 세계50개국 다 뒤지려면 한참 걸립니다. 오래 걸립니다. 이름까지 모르면 얼굴 지나가면 다 기도해줍니다. 그러니까 안 될 수가 없습니다. 잘 됩니다. 내가 기도해준 것을 본인 스스로가 잘 몰라도 잘 됩니다. 나는 튼튼하고 건강합니다. 내가 현재 나를 혹사를 시키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도 건강합니다. 오히려 바깥의 사람들이 더 걱정입니다. 내 얼굴 잊어버리지말고 잘 기억하세요.